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4. 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ISIS 불법 무역으로 테러자금 조달 경고

- 4.1 「이보르 로버츠」前 영국 대테러센터장은 ISIS가 상아·코뿔소 뿔·설탕 등을 불법 거래해 얻은 재원으로 동아프리카 직원들에게 테러자금을 지원중이며, 동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
- * 同인은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장

미주

○ 美, 지난해 증오범죄 감소 불구 아시아인 대상 범죄 증가

- 캘리포니아주립대 「증오·극단주의 연구센터」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'20년도의 증오범죄는 7% 감소했지만 아시아인 대상으로 한 언어·신체적 폭력은 오히려 150% 증가했다고 발표

○ 美, 밀입국 시도 테러 연계 혐의 예멘인 체포

- 美 CBP(세관국경보호국)는 지난 1·3월에 캘리포니아 멕시코 접경에서 밀입국하던 예멘 남성을 각각 체포하였으며, 조사결과 이들은 국제 테러단체 연계 혐의로 FBI의 감시 대상자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발표

아·태평양

○ 아프간 정부, 파키스탄의 탈레반 내세운 代理戰 준비 비난

- 4.1 아프간 국가안보국(NDS) 국장은 “파키스탄은 항상 아프간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가라며, 동국가의 정보기관이 탈레반 지역 사령관과 지휘관들과 내통해 자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”고 비난
- * 아프간 국방부와 내무부도 탈레반이 지방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

○ 외교부, 미얀마 대상 여행경보 및 위기경보 격상

- 4.3 외교부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여행경보*를 '3단계(철수권고)'로 상향하고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위기경보**도 '심각' 단계로 격상하는 한편, 외교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구성·운영한다고 발표

* 1단계(여행유의)-2단계(여행자제)-3단계(철수권고)-4단계(여행금지)

** 관심(아국인 피해발생 징후 포착)-주의(아국인 피해발생 가능성 심화)

-경계(아국인 피해발생 가능성 가시화)-심각(아국인 피해발생 또는 확실시)

○ 대전유성경찰서, 충남大 도서관 폭파 협박범 입건

- 4.3 대전유성경찰서는 SNS에 '충남大 도서관 1층에 폭탄 설치' 글을 게시(4.2)한 용의자(20대, 대학생)가 자수함에 따라, 협박죄로 입건해 불구속 조사 후 귀가 조치시켰다고 발표

* 용의자는 4.2, 15시경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'충남大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으며, 15시30분에 폭발하도록 세팅했다'는 익명의 글 게시

아프리카

○ 니제르 대통령, 알카에다·ISIS 연계 단체 자행 테러 규탄

- 4.2 「바쥬」 니제르 대통령은 취임(4.2) 직후 타우아주에서 알카에다·ISIS 연계 단체가 지난 3.21 자행한 테러(투아레그族 141명 피살)에 대해 무고한 양민 학살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규탄

* 「바쥬」은 니제르 독립 60년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민선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

○ UN, 소말리아 軍 기지 대상 4.3 테러 공격 규탄

- 4.4 소말리 파견 「제임스 스완」 UN 특사는 전일(4.3) 남부 바리르와 아우디글 지역 주둔 소말리아 軍기지 대상 테러 공격에 대해 "소말리아 재건을 방해하려는 시도이다"라며 규탄하는 한편,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표명

* 알사바브는 同 공격의 배후를 자처

아프간 시위대, 코란 소각 사건 규탄 과정에서 유엔사무소 습격

- '11.4.1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코란을 불태운 미국인 목사 동영상에 격분한 일부 무슬림들이 발흐州的 州都 마자리샤리프市 소재 유엔 사무소를 공격, 노르웨이·스웨덴·루마니아 출신 직원 등 12명 살해
 - * 3.20 美 플로리다州에서 개신교 목사 테리 존슨(59세)은 코란을 피고로 모의 재판을 실시, 유죄 판결 후 소각했으며 관련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재
- 당일 금요일예배 참석 군중들은 미국인 목사의 코란 소각에 대해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이다 유엔사무소로 몰려가 총격과 방화를 자행했으며 관련 소요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아프간내 외국인 추가피해 가능성 제기
 - * 사건 발생후 4.5 아프간 주둔 우리 오쉬노 부대에 대한 로켓 공격 발생
- 「미스투라」 유엔 대표부 대표는 시위에 최대 10여명의 무장반군이 개입해 직원들의 사망 등 유혈사태를 조장했다고 주장
- 탈레반은 ‘미국과 서방이 코란 소각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고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’라며 배후를 자처
- 한편, 「반기문」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“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잔인무도하고 비겁한 공격”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

< 탈레 반(Taliban) >

- (목 표) 아프간내 외세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수립('94.8 결성)
- (조직규모) 약 55,000~85,000명('20.5, UN), 100,000명('19.8, 美 민주주의 수호재단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물라 아쿤자다」, 제1부사령관 「시라주딘 하카니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하카니 네트워크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접경지역
- (활동수법) 주요도시에서 정부청사·국제기구 등 대상 폭탄테러, 지방에서 연합군 및 아프간 군경 대상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
- (주요활동) ① '07.7 가즈니州에서 샘물교회 봉사단 2명 살해, 21명 42일간 억류
 ② '11.2 와르닥州에서 미군 헬기를 격추, 특수부대원 등 30명 사망 초래
 ③ '15.8 카불에서 미군 용역업체 차량 자폭테러로 12명 사망